

무재해 일터 만들기 결의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안전시공 신기술 소개 세미나서

(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회장 권五錫)는 지난 달 29일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에서 무재해 추진 전진대회 및 제5회 건설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열린 무재해 추진 전진대회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를 비롯 6백여명의 참석자들은 정리정돈 안전점검등을 생활화함으로써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전진대회에서는 삼성중공업(주), 대림산업(주), 두산개발(주)이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 표창을 받았으며 삼보지질개발(주) 姜炳山 사장, (주)대우 文正一 안전관리팀장, 한진건설(주) 金鍾煥 안전관리실 차장 등 3명이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권五錫 회장은 이날 회사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의 60% 이상이 교육적 원인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운동선수에 있어 사전준비운동과 같은 작업전 안전교육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孫元植 노동부 산업안전국장도 치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달부터 건설현장에도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본세미나에서는 삼성건설(주) 구포전력구 金성준 소장이 「도시터널 공사의 안전시공(Shield 공법)」에 대해 (주)대우 마리나 아파트 현장 金창환 소장이 「고층건축 공사의 안전시공(P·C공법)」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金성준 소장은 Shield의 발주·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공법이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지질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Shield 공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설계심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DWS(DAEWOO BUILDING SYSTEM) 공법에 대해 주제발표한 대우 金창환 소장은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 현장작업이 거의 없이 공장에서 완성품이 이루어지므로 품질·안전·환경 공정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金 소장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DWS공법 사용으로 인한 현장 안전관리체제 변화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건설안전신문 7월 11일자〉

건설현장 災害 큰 폭 減少

—작년 1.44%로 全産業평균 접근—

89년이후 최저, 업계 豫防노력 뚜렷
손실액 1.2兆…소규모現場 발생빈도 높아
勞働部, '93産業재해 분석

건설현장의 투입인력 가운데 1천명당 14명이 재해를 입고 1만명당 3~4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勞働部가 8일 발표한 '93산업재해분석 자료에 담긴 건설산업의 재해실태 진단에 의한 것이다.

건설산업의 지난해 1천명당 재해자수(천인율)는 지난 89년 14.18 이후 가장 낮은 기록으로 지난 80년대 후반 1천명당 22~31명의 사고발생이나 지난 92년 19명 재해발생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나 전체산업의 평균치(13.01)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사망재해 또한 건설업은 1만명당 사망자(만인

안전소식

율)가 지난해 3.50으로 전년의 4.44에 비해 큰 폭 감소, 업계의 중대재해 예방노력이 엿보이게 했으나 전산업평균 3.1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아 산업별 위험노출도가 높은 업종이란 인식이 지속 되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건설산업의 産災대상 총근로자수가 181만7천명으로 이 가운데 2만6천명이 재해를 입어 災害率이 1.4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재해율은 전년의 1.90%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全産業의 평균 1.30%에 비교적 근접한 수치로 기록했다.

그러나 재해강도 등은 극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인명존중의 死角地帶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망재해에 대한 남다른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한해 건설업의 사망자수는 638명으로 전체 産災사망자의 28.8%를 차지, 산업별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양산한 업종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반재해를 포함해 건설업 전체의 경제적 손실액은 산재보상금 3천355억원에다 간접손실액 9천125억원을 합친 1조2천480억원에 이르렀다.

이같은 손실액은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빈발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산업의 중대재해는 단순히 막대한 경제적 손실규모의 추정을 떠나 건설업의 인력수급에 차질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능인력의 근로의욕을 위축시켜 결국 생산성과 품질의 저하 등 건설환경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제 건설산업에 있어 생명존중의 경영철학이 건설업계의 경영전반을 지배해야 된다는 지적이 강력 대두되고 있다.

이번 노동부가 발표한 재해분석 가운데 기업규모별, 재해자의 사고원인별 등 재해유형분석은 기업의 재해예방기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재해발생현황을 살펴본다.

기업규모별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2.93%로서 지난해 평균재해율에 비해 두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만명당 8~9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이 사망위험에 심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30인 미만 사업장도 1.60%로 비교적 높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지분석 비숙련기능인력과 신규인력의 재해 증가는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재해자수 2만6천129명 가운데 6개월 미만 신규인력의 재해자수는 2만3천520명으로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과 40대 이상이 전체재해자의 85%를 차지해 30대 이상 비숙련신규인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재해의 경우 6개월 미만 미숙련근무자가 426명을 기록해 전체 사망자수의 67%를 차지, 이들 인력에 대한 각별한 재해예방노력이 요구된다.

재해발생시기 하루 집중재해시간대는 오전 8시~오후 4시까지로 특히 오전 8~10시까지의 재해 집중도는 23%로 가장 높고 점심식사가 끝난 오후 2~4시간의 재해는 21%로 나타나 이들 시간대에 재해주의가 요구된다.

요일별로는 月·火요일이 15%대로서 여타 요일보다 재해가 빈발됐다.

월별로는 7월과 11·12월의 재해발생률이 10%대에 육박했다.

(일간건설 8월 9일자)

무재해 실천요원교육 수강생 설문결과

무재해운동 건설업 특성과 부합돼야

실무자대상 세부적 교육 힘써야

「저비용 산재예방기법」 관심 커

건설현장 안전관계자들은 정부가 추진해온 무재해운동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 실천요원교육과정 수강생 5백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정부의 무재해운동이 재해감소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뿐 지금은 관심이 없는 편」이라는 반응이 19%, 「사업장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15%, 「잘 모르겠다」 5%로 나타나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운동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무재해운동이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추진 실무자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인식시켜 줄 만한 교육기회가 부족했다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번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한 무재해 실천요원교육에 참석자들이 높은 호응을 보인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교육은 무재해운동 정책방향, 무재해 3대 실천행동이론, 저비용·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 4과목으로 진행됐으며 수강생의 90% 이상이 교과목 편성이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건설현장 특성에 걸맞도록 재구성된 내용으로 진행된 저비용·고효율 산재예방기법 강의에 수강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전체의 30%가 이를

가장 유익했던 과목으로 꼽았다.

또한 28%는 무재해 3대 실천행동이론을, 26%는 위험예지훈련실습을 각각 유익한 과목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건설재해 예방의 선결조건으로는 경영층의 관심도가 44%를 차지, 가장 높았으며 각종 교육 실시(28%),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보강,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무재해 실천요원교육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안전신문 8월 15일자〉

'94 도급한도액 순위

건설부, 올해 순위 발표

1개 건설업체가 공공 및 민간공사 1건을 수주할 수 있는 한도액이 2조원대를 넘어섰다.

건설부가 24일 발표한 올해 도급한도액 순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도급한도액은 지난해 1조8천1백68억원보다 12.5% 증가, 국내업체로서 유일하게 한도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92년 도급한도액 1조원을 넘어선 지 불과 2년만의 일로 국내 건설업체의 외형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참조〉

올해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인 업체는 포항제철 계열사인 거양개발로 작년 94위(한도액 7백29억원)에서 37위(한도액 2천3백16억원)로 무려 57단계를 뛰어넘었고 작년 50위권 밖이었던 삼익건설도 34위를 차지, 대형건설사群에 합류했다.

올해 도급한도액이 1조원을 넘은 업체수는 작년과 같은 5개업체이고 5천억원 이상 업체는 12개사에서 16개사로 늘었으며 2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도 25개사에서 32개사로 증가, 전반적

안전소식

으로 도급한도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8월 25일자>

표 '94 도급한도액 순위 (단위 : 억원)

순 위	회 사 명	'94 한도액	'93 순위
1	현 대 건 설	20,442	1
2	대 우	17,523	2
3	동 아 건 설 산 업	15,024	4
4	삼 성 건 설	12,456	3
5	대 림 산 업	10,211	5
6	현 대 산 업 개 발	9,258	7
7	쌍 용 건 설	8,209	9
8	력 키 개 발	7,347	8
9	한 국 중 공 업	7,207	6
10	롯데 건 설	6,984	16
11	선 경 건 설	6,148	12
12	삼 성 중 공 업	5,769	22
13	금 호 건 설	5,520	11
14	우 성 건 설	5,456	13
15	동 부 건 설	5,455	14
16	두 산 건 설	5,368	15
17	한 진 건 설	4,861	20
18	신 안 중 합 건 설	4,649	23
19	한 양	4,557	17
20	한 신 공 영	4,490	10
21	삼 부 토 건	3,915	28
22	벽 산 건 설	3,911	18
23	경 남 기 업	3,856	29
24	태 영	3,840	27
25	건 영	3,787	19
26	청 구	3,757	25
27	극 동 건 설	3,578	21
28	동 신 주 택	3,542	32
29	삼 환 기	3,391	24
30	코 오 룡 건 설	3,224	26
31	풍 림 산 업	3,200	31
32	우 방	3,113	38
33	유 원 건 설	2,816	33
34	삼 의 건 설	2,791	59
35	신 화 건 설	2,771	30
36	신 성	2,376	36
37	거 양 개 발	2,316	94
38	남 광 토 건	2,281	56
39	성 지 건 설	2,268	39
40	기 산	2,125	34

41	한 라 건 설	2,087	58
42	진 로 건 설	2,083	51
43	벽 산 건 설	2,080	35
44	삼 호	2,061	37
45	신 동 아 건 설	2,059	49
46	한 보 철 강 공 업	2,056	54
47	성 원 건 설	2,020	48
48	공 영 토	1,971	69
49	서 광 건 설 산 업	1,956	41
50	삼 성 엔 지 니 어 링	1,939	61

「不實工事 벌점제」導入

업체별로 入札불이익 주기로

건설부는 건설업체 감리업체 및 설계용역업체 별로 부실의 정도와 빈도 등에 따라 벌점을 매겨 공사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실벌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주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건설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10점의 벌점을 매기는 등 공사부실의 분야별 정도에 따라 1~10점의 벌점을 주어 점수를 누적 계산하도록 했다.

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15점의 벌점을 매기는 등 사안별로 2~15점의 벌점을 주고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설계로 징역 또는 벌금을 문 경우 60점의 벌점을 매기는등 부실설계정도에 따라 1~60점의 벌점을 주기로 했다.

<건설환경신문 8월 29일자>